제8강 일본, ‘신’의 나라? ‘신들’의 나라?

가. ‘신’의 나라- 천황이데올로기와 아마테라스

○『고사기』와『일본서기』의 아마테라스 탄생 신화

1) 남신 이자나기와 부부가 되어 국토와 신을 낳던 여신 이자나미가 죽다.

2) 이자나기는 여신을 다시 지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사후세계인 요미노쿠니를 방문한다.

3)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 이자나미의 금기를 깨뜨리고 도망친 이자나기, 혼자서 지상으로 돌아오다.

4) 쯔쿠시 해안에서 목욕재계하여 다시 신들을 탄생시킨다.

남신이 왼쪽 눈을 씻었을 때 태어난 신의 이름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오른쪽 눈을 씻었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쯔쿠요미 노미코토, 코를 씻을 때 태어난 신의 이름은 다케하야 스사노오 노미코토였다... 이때 이자나기는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자식을 차례차례로 보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세 명의 존귀한 자식을 얻었다’라고 하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의 구슬을 흔들면서 벗은 후 또다시 흔들면서 아마테라스에게 주며 말하기를 “너는 천상계를 다스려라”하며 그 일을 위임하였다... 다음에 쯔쿠요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루노오 스쿠니를 다스려라”라고 하며 그 일을 위임하였다. 다음에 스사노오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나하라를 다스려라”하며 그 일을 위임하였다.(『고사기』)

“너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남신이 묻자 여신이 대답하기를 “나의 몸은 차츰차츰 생겨 이루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이자나기는 “나의 몸도 차츰차츰 생겨났으나 한 곳은 남은 데가 있다. 그렇다면 나의 여분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너의 몸과 합쳐 국토를 낳고자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 했다....

“그렇다면 우리 둘이 서로 이 기둥을 돌면서 만나 결혼하기로 하자.”라고 이자나기가 말을 했다. 이 같은 약속을 한 다음 다시 그가 만나기를 “너는 오른쪽으로 돌고 나는 왼쪽으로 돌아서 만나자.”라고 했다.

그 기둥을 돌 때 이자나미가 먼저 “정말 잘 생긴 남자이구나!”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나기도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여자이구나!”라는 말을 했다. 이와 같이 서로의 말을 마친 후 이자나기가 여신에게 말하기를 “여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았다”하였다. 이렇게 만난 두 신이 결혼을 하여 낳은 자식은 히루꼬였다. 이 아이는 갈대로 만든 배에 태워 떠내려 보내고 말았다.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은 이와시마라는 섬이었다. 이 아이 또한 자식의 수에는 넣지

않았다.(『고사기』)

남신은 거대한 천인석千引石(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돌)을 들어 요모츠히라사카라는 언덕에 가로 막아 놓고 그 바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여 부부 이별의 말을 주고받았다. 먼저 이자나미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남편께서 이와 같은 짓을 하시면 하루에 당신의 나라 사람들을 천 명 죽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이자나기는 "사랑하는 아내여 네가 정녕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루에 천오 백 개의 산실을 짓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루에 반드시 천 명이 죽는 한편, 하루에 반드시 오백 명이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니시오 간지(西嶋幹二, 1935~) □국민의 역사□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세계사의 필연에 대해 우리는 아무 것도 사죄할 필요가 없다."(『국민의 역사』「나는 지금 한일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에 출현한 것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이었다"(『국민의 역사』「'GOD'를 '신'으로 번역한 오류」)

모리 전 수상의 발언 "일본이라는 나라, 바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분명히 알리고 운운."(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에서의 인사말. 2000.5.13.)

"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일본에는 『고사기』에 수록된 신화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 토지나 산, 바다, 강 등의 자연 가운데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결코 천황이 신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모리, 참의원 본회의에서 답변, 『每日新聞』2000.5.17.)

'신국 일본'이란 아마테라스오미가미에서 현인신인 천황에 이르는 무상무비의 계보에 의해 신성화된 일본이라고 하는 '황국 일본'의 이념이며 여기서 '신'이란 일본의 국가 이념을 형성하는 궁극적 존재라는 점에서 일신적 성격을 띤다. 그것은 결코 '신들'로 다신화된 신이 아니다. 그러나 해명의 언설은 '신들의 나라 일본'이라고 하여 다신적 세계 속에 일본을 두려고 한다. '신들의 나라 일본'이라는 언설은 모리의 해명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후 50여년을 거친 시기에 '신국 일본'을 해명하기 위해 재구성된 언설이다....

아마테라스오미가미를 최고의 신으로 하여 신들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그 신들을 모시는 신사를 계층화한 국가신토와 이 국가신토를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삼은 근대 일본의 천황제 국가를『국민의 역사』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았던 것일까? 일신적인 최고신 아마테라스오미가미를 숭배한 것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근대 일본의 착오였다는 것인가?

아니다.『국민의 역사』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천황은 처음부터 신이었으며 지금도 신이다. 신의 개념을 서구와 달리하는 것이다."

‘신국 일본’을 ‘신들의 나라 일본’이라고 해명한 이 언설은, 다신적인 ‘신들’을 일신적인 ‘신’에 대치시키면서 이야기한 ‘신들의 나라 일본’이라는 언설은 서양문명이나 중국문명도 일본과는 이질적인 문명이라는 일국문명사를 구성하는 언설이다. 이 언설은 ‘문명이 충돌’하는 세계구도 속에서 ‘일국문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정치적 언설이었던 것.(『동아, 대동아, 동아시아-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옮김, 역사비평사, 2005)

후쿠자와 유기치

“나쁜 친구와 사귀는 사람은 함께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아시아 동방의 나쁜 친구를 거절해야 한다.”(1885, 3.16. 『시사신보』사설)

○ 이즈모대사[出雲大寺]와 이세신궁[伊勢神宮]

* 아마테라스의 다카마가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동생 스사노오 때문에 격분한 아마테라스, 동굴 속에 몸을 숨기다.(아마노이와토). 장닭들이 울고 신들이 떠들썩하게 모여들다. 비쭈기나무(* 비쭈기나무와 아베)에 하얀 종이, 구슬, 거울 등을 걸어놓고, 상반신을 드러낸 아메노우즈메가 춤을 추다. 다시 나타난 아마테라스(상징물은 거울)

* 스사노오- 이즈모로 와서 야마타노오로치를 처단하고 쿠시나다히메와 혼인하다. 그의 아들 혹은 6대손이라는 오호쿠니누시(大國主神), 형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두 번에 걸쳐 부활하여 네노쿠니로 피신, 결국 스세리비메와 혼인하고 이즈모의 주인이 된다. 이즈모대사의 주신은 오호쿠니누시, 1500킬로그램에 달하는 시메나와로 유명한 곳. 10월(신들이 외출하는 달)이 되면 8백만 신들이 모인다는 장소.

* 니니기노미코토- 아마테라스의 손자. 거울과 도작법을 갖고 강림하여(천손강림) 국토를 양도받다. 그의 후손이 초대 천황인 신무. ‘천황’의 계보가 시작된다.

이세신궁은 아마테라스를 모신 곳.

17세기부터 60년 정도에 한 번씩 수백만 명이 모여드는 ‘參宮’ 열풍 있었음.

나. ‘신들’의 나라-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과 <아바타>, 그리고 신화

○ 미야자키 하야오(1941년생)

고교 시절에 도에이에서 만든 <백사전白蛇傳>을 보고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짐.
(*백사전- 중국 4대 전설 중의 하나, 영화 <청사>)

○ 1984년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두 개의 제국
부해와 물과 나무/ 푸른 청정의 땅/ 오무

○ 1997년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
도입부-
숲의 나무가 베어지는 장면과 멧돼지 재앙신 타타리가미의 출현
활을 잘 쏘는 청년- (*'메르겐')
스스로를 희생하는 지도자, '검은 돌'을 지니고 '서쪽'으로 가다
구슬과 곡옥과 나뭇가지로 점을 치는 '할머니', 조롱박 속의 물로 상처를 닦아주다
시시가미 숲의 시시신-사슴/ 순록/ 뿔
하얀 늑대 모로
사슴(순록)/ 늑대/ 초록색/ 파란색
에보시의 공장 쇠를 다루는 인간의 이성 - / 불의 사용
(시시는 자연신, 그를 '낡은 신', 인간의 영역을 방해하는 자연신으로 바라보는 시선)
시시가미가 딛는 곳에 풀과 꽃이 자라나지만 발을 떼면 시들어버리는 모습
자연신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과 파괴적 힘(나시족의 자연신 Su/ 이족의 돌의 신과 비교)
재앙신이 되어 죽어가는 멧돼지 웃코토누시
"사라질지라도 인간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거야."

○ 2001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도입부-
치히로 손에 있던 꽃이 시드는 장면
숲으로 질주해 들어가는 아버지의 아우디 자동차
버려진 돌 신당
문- 동굴/ 석상과 천인석- 경계
금기와 경계와 위반과 징벌
돼지로 변한 부모
낯선 거리에 홀로 선 치히로/ 신발/ 이름
조력자들- 엘리베이터 손님, 린, 가마할아버지, 숯, 가오나시, 제니바
하쿠(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 고하쿠카와)
오물신과 강
제니바 할머니와 보- 물레와 실과 머리끈
중시하는 가치- 정체성(주관), 용기, 인내, 예의, 규칙

<아바타>에 초록색과 푸른색이 많이 나오는 까닭은

나무는 그의 작품에서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를 이어주는 우주목이며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이다. 그의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아닌가 하는 논란까지 나왔던 영화 <아바타>에도 거대한 나

무가 등장한다. <원령공주>에서 철광석을 캐내기 위해 산을 파괴했던 인간들처럼 <아바타>에서도 돈 나가는 광물을 얻기 위한 인간의 탐욕은 숲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숲의 어머니이자 위대한 여신이며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영혼의 나무'는 끝까지 살아남아 생명의 에너지를 전해준다. 3D의 화려한 기술보다 <아바타>를 더 돋보이게 해준 것은 <아바타>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었고, 그 메시지의 중심엔 숲과 나무, 그리고 생명이 있었다.

<아바타>의 주조를 이루는 빛깔은 초록색과 푸른색이다. 생명의 별 판도라 행성 사람들의 피부는 푸른색이며 주인공 제이크와 네이티리가 타고 날아다니는 새도 초록색이다. 침입자들과 최후의 결전을 치르는 그들의 얼굴을 장식한 빛깔도 초록색과 푸른색이다. 초록색과 푸른색은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신화적 사유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빛깔이다. 먼저, 푸른색은 '저 푸른 하늘' 즉 천신(텡그리)의 하늘을 상징한다.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의 장소로 여긴 그곳은 늘 '저 푸른 하늘'이었다... 푸른색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을 굽어보는 천신이 깃든 곳이며 또한 자신들의 영혼이 날아올라가는 곳이었다. 그래서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른색은 하늘의 빛깔이었으며 , 그런 까닭에 지금도 유라시아대륙의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창문과 대문 빛깔이 여전히 푸른색이고 몽골 사람들의 오보에 묶여 있는 하닥도 푸른색인 것이다.

그렇다면 <아바타>의 주조를 이루는 또 다른 빛깔, 초록색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나무의 빛깔이다. 눈을 뜨면 초록빛 숲이 보이는 지역에서 초록은 일상적인 빛깔이겠지만 초록이 드문 사막이나 동토의 땅에서 초록이란 곧 나무를 의미하며 또한 생명을 상징한다. 그것은 사막 뿐 아니라 초원도 마찬가지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대한 초원 어딘가에 물이 있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있다면 그곳은 곧 성소가 되며 생명의 장소가 된다. 물가에 있는 나무는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나무 한 그루를 건드리면 숲의 다른 나무들도 힘을 잃는다. 몽골 사람들에겐 이런 믿음이 있다.

"숲에 나무들이 모두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가장 끝에 자란 나무에 상처를 입히면 숲의 모든 나무들의 연결이 끊길 수 있다고 여겼다."(이안나의 책)

판도라 행성의 숲을 연구하는 식물학자 그레이스박사가 거대한 나무를 둘러싼 숲을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게 했던 말...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숲속의 사람들을 '나무에 사는 더러운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탐욕스런 인간에게 그레이스박사는 숲의 나무들이 '전기화학작용'으로 서로 소통한다면서, 숲에 있는 무려 1조 그루의 나무들이 두뇌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숲의 생태학이라는 것인데, 고대 몽골인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나아가 숲과 나무가 인간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에 나무가 상하면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아이의 태반에서 과일나무가 자라나고 아이가 그걸 먹고 자란다는 몽골신화는 나무를 어머니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유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아바타>의 마지막

부분, 실제 제이크의 몸과 판도라 행성 사람의 푸른 몸이 영혼의 나무 아래에 나란히 놓인다. 숲속 사람들의 어머니인 영혼의 나무가 매개가 되어 제이크의 영혼을 푸른 판도라 행성 사람의 몸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온다. 부드러운 하얀 실 같은 것이 나무에서 나와 그것이 사람의 몸과 연결되는 그 장면은 과일나무를 인간의 태반으로 생각한 이 신화를 떠올리게 한다.(사실은 그레이스박사를 살리기 위해 그의 몸을 영혼의 나무와 연결시키는 장면에서 더욱 강렬한 '탯줄'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것은 또한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오무의 촉수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오래된 지혜』(김선자, 어크로스)에서 발췌했음)